



◇ 사찰에 개원된 한문 서당이 새로운 청소년 문화로 정착되면서 방학과 휴일을 이용, 청소년들이 한문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은 박연사 한문교실>

19일부터 2월5일까지 두번째 한문서당을 연 청소년 수련원은 청학동에서 이경중씨(60)를 비롯 3명의 훈장을 초빙, 옛 서당의 전통서당교육방식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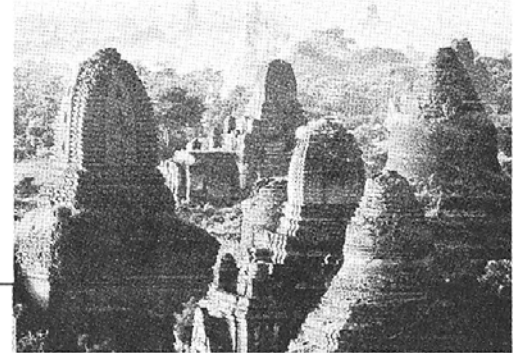
부모님의 권유로 한문서당에 입학했다는 김명현군(경기 군포국고 4)은 "한문을 암송하고 술대가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며 특히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일산신도시에 개원된 법등사(주지 해종)도 범등문화학교를 개원, 매주 월·수·목요일 새차에 걸쳐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한문서당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어린이 법회 활성화 등 청소년 포교 한 몫

또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의 경우 매주 일요일 사자소화를 교재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지루하고 산만해지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병행, 어렵게만 느껴지는 한문교육을 보다 쉽게 접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암사(주지 실상)와 삼전복지관(관장 보각)도 방학기간을 통해 사자소화, 천자문, 발심수행장과 고사성어 등을 교재로 가르치고 있다. 사찰에서 개설되고 있는 한문서당은 청소년 포교와 전인교육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합숙지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봉화산 한문서당은 초급반·중급반으로 나뉘어 사자소화, 생활한자, 명심보감, 격몽요결을 교재로 인성계발, 예절습득 등을 함양하는데 근면취지를 두고 있다.



◇ 미안마 파간의 탑군은 부처님 당시의 불교미술이 가장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남방불교의 대표적 성지이다.

사찰개설 '한문 서당' 전인교육 역할 '톡톡'

쓰고 읽고 외우며 인성계발·예절 습득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유아(4세)때부터 중학생까지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도해 오고 있다. 이는 읽기, 암송, 붓·연필로 쓰기, 문장해석 등 전통서당식의 장점과 현대적인 지도방법으로 개인지도식 교육과 어린이들의 정서안정, 잠재력계발을 위해 참선·예절교육 등을 병행,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 넘는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 서대문구 백련사(주지 운경)도 구립 2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달간 국교반·중교반으로 나눠 천자문, 부모은중경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한문서당에서 종교반 훈장을 맡고 있는 무불스님은 "재미있는 한문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병자년 새해부터 인도·네팔 등 성지순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건축분야도 전문화되고 있다. 이는 사찰이나 각 신령단체 단위 대규모 관광순례로 실시했던 예년과는 달리 소규모로 구성된 전문 답사·순례단으로 변모하기 때문. 동국대 문명대 교수(미술학과)팀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아잔타, 엘로라, 나시크 등 석불사원과 4대성지, 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이런 답사는 사진작가 안장현씨를 비롯 연구원 6명이 동행, 2백여 불탑들이 있는 파간탑의 양식과 원류를 비롯 고도로 발달된 파간의 불교문화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신영훈씨는 오는 25일~2월 8일까지 아잔타 석굴을 비롯 인도 불교사원의 건축양식 조사를 위해 답

사찰에 오른다. 이처럼 불교미술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순례단은 전공분야 답사뿐 아니라 성지순례를 겸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본사가 주최하고 있는 성

해외 성지순례 전문화 추세

관광위주 탈피 미술·건축등 문화답사 늘어
본사주최 인도·네팔순례 4차 걸쳐 진행중

미술사와 관련된 불교유적들을 집중적으로 답사한 이번 순례단은 "현지답사를 통해 불교미술과 역사에 대한 진수를 체험했다"며 "불교미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금년으로 3년째 동남아불교현황조사를 실시하는 이기선씨(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일행도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미안마 파간일대 답사를 떠났다.

이런 답사는 사진작가 안장현씨를 비롯 연구원 6명이 동행, 2백여 불탑들이 있는 파간탑의 양식과 원류를 비롯 고도로 발달된 파간의 불교문화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신영훈씨는 오는 25일~2월 8일까지 아잔타 석굴을 비롯 인도 불교사원의 건축양식 조사를 위해 답

사찰에 오른다. 이처럼 불교미술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순례단은 전공분야 답사뿐 아니라 성지순례를 겸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본사가 주최하고 있는 성

지순례는 지난 17일에 이어 24일, 27일, 31일, 2월 4일 5차례에 걸쳐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인도·네팔 지역으로 떠난다.

전문안내원이 동행하는 이번 성지순례는 부처님의 숭골이 살아 숨쉬는 성지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동국대 석림회, 정토법당 등을 비롯 전문답사단이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답사와 순례의 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

만화 법구경

* 성 념의 장 *

항상 깨어있고 밤 낮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이 향 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출판 예고-

행복과 불행 한몸의 두 얼굴

-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 -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행복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면 내가 행복한 일에도 다른 사람은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절대가치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는 '저자는 쓰고 독자는 읽는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독자와 저자가 함께 만드는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독자가 만든 책인 셈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의 소유자인만큼 행·불행에 대한 생각들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 놓고 행·불행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다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내 일을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편의상 행·불행이라 말할 때, 살아가는 일 그 자체에 대해 '내가 만드는 심리 처방전'인 셈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독자와 출판사와 독자를 대표할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와 함께' 조금은 색다른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편번호 : 110-170)
전화 : (02) 737-8881 / 팩스 : (02) 737-0697

아래의 난에 아무 격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써 주십시오. (나이 : 성별 :)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가정에서		
직장(학교)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밖에		

위 설문지를 그대로 오려서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팩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책이 출판된 후, 책자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주)현대불교신문사 출판국 / 전화 (02) 737-8881, 팩스 (02) 737-0697